

충장축제 '추억의 거리'로 뛰어들자



13~ 18일 충장로 일대

“깊어지는 가을 친구·가족과 함께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충장축제로 추억 여행을 떠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이자 광주를 대표하는 도심거리축제로 자리잡은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오는 13일 개막된다.

6회째를 맞은 올 충장축제는 거리퍼레이드 경연과 전시관인 '추억의 시간여행'을 대폭 보강한 것이 특징. 광주시 동구는 옛 충장로를 기억하는 7080세대뿐만 아니라 충장로에서 미래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는 2030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했다.

▷과거를 떠올려보요=추억을 핵심 주제로 삼은 충장축제의 가장 큰 특색은 '과거를 만나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추억의 시간여행' 전시관에서 전문 연기



D-7 거리 퍼레이드 '제6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 개막을 일주일 앞둔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충장축제 D-7 거리퍼레이드'가 열렸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화공연을 보고 싶은 관람객과 시민들은 '지역 문화그룹 공연'이 열리는 무대를 찾으면 된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온 150개 팀이 준비한 합창단과 요율 송, 마술 쇼, 라틴댄스 등의 공연이 20~30분 단위

추억의 시간여행·동창회 등 다채 전국 150개 팀 '문화 공연' 뿐만 다문화 가족 추억 이야기 코너도

자들이 직접 과거 유행했던 복장을 한 채 관람객을 맞는다. 30~40년 전 충장로에 있던 이발소나 삼점, 다방 등 다양한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추억의 전시관을 찾은 시민에게 옛 충장로를 걷는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자녀를 동반한 부부라면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연애할 땐 충장로가 재밌어"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다.

깊어지는 가을밤 마련했던 추억을 떠올리는 중·장년층들은 금남로 공원에서 열리는 '추억의 동창회'에 가보자. 축제기간 동안 하루에 한 학교씩 동창생과 은사를 만나는 자리인 추억의 동창회에선 전남여고와 전남고, 동신고, 동신여고, 광덕고 등 5개 학교가 행사를 갖는다. ▷현재를 느껴보요=생생한 문

로 진행된다.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는 아니지만 격조 높은 공연을 기대해도 좋다.

축제 기간 충장로와 금남로 골목에서는 화려한 무대도 없이 공연하는 '충장로 골목길 문화제'를 만날 수 있다. 아코디언 연주나 마임 쇼, 보컬그룹 공연 등 7개 장르 20여개 팀이 무대에 조명도 없이 뒷자리를 편 채 공연을 하거나 선 채로 문화제를 연다. 그 곳에서는 관람객들도 선 채로 공연팀이 주는 즐거움 속으로 빠져 들 수 있고, 정식 공연장에서 서와는 달리 공연이 맘에 들지 않으면 '부담없이' 조용히 자리를 뜰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해요=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의 흐름에 맞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출신 4개 팀 540여명이 참여한 '다문화 가족 추억이야기'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 공간에서는 귀화한 외국인이나 외국인

■ 충장로 축제 일정

- 충장로 거리극 (14~ 18일)**
시간 15:30~22:00
장소 광주우체국, 금남로 1·2 무대
내용 70~80년대 상황을 코믹하게 묘사한 거리극
- 외국인·다문화가족 추억이야기 (13~ 18일)**
시간 19:30~21:00
장소 금남로 2 무대
내용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이 참여한 추억의 밤
- 추억의 시간여행 전시관 (13~ 18일)**
시간 10:00~23:00
장소 옛 중앙교회
내용 70~80년대 충장로를 옮겨 놓은 듯한 전시관
- 추억의 사진전시 (13~ 18일)**
장소 광주우체국
내용 70~80년대 추억의 스티 사진, 광주 백년사 등 전시
- 충장로 추억의 밤 (충장로 夜한밤에) (13~ 18일)**
시간 21:00~21:30
장소 광주우체국
내용 추억의 노래 앙코르, 보노보 친구아
- 지역문화그룹 공연 (13~ 18일)**
장소 금남로 1무대 및 2무대
내용 150여개 팀이 준비한 다양한 문화공연
- 맨스 페스티벌 (13~ 18일)**
시간 20:30~21:00
장소 광주우체국
내용 젊음을 겨냥한 리믹스 맨스 페스티벌
- 추억의 동창회 (14~ 17일)**
시간 19:30~22:00
장소 금남로공원
내용 전남여고 등 5개교 동창생들의 만남

노동자들이 자국의 전통 민속 공연이나 연극, 댄스 등을 선보이고, 그들의 음식을 소개하는 화합의 장도 열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국어 사랑 어울림 한마당 9일 조선대 IT홀서

전남대 국어문화원(원장 서상준)과 조선대 한국어학당(학당장 강희숙)은 한글 날인 오는 9일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외국 유학생에게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일깨우는 '한국어 사랑 어울림 한마당'을 연다.

조선대 전자정보 공과대 IT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경희대 베르너 샤테 교수의 '세종과 일인전간지곡' 강연을 비롯해 유학생과 이주여성들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나 '옛날 옛적에' 등을 주제로 3~5분씩 스피치 시간을 갖는다. 입상자에게는 20만~4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문의전화 062-230-6522. /채희중기자 chae@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2분 해질 18시 08분 달돋이 19시 39분 달질 09시 30분

강풍주의보 제18호 태풍 '멜도르'가 북상하면서 남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광주	맑음	13/26℃
목포	맑음	14/23℃
여수	맑음	17/22℃
완도	맑음	15/24℃
구례	맑음	9/25℃
애남	맑음	11/25℃
장흥	맑음	11/25℃
고흥	맑음	14/25℃
순천	맑음	14/15℃
영광	맑음	11/25℃
진도	맑음	13/24℃
전주	맑음	11/25℃
남원	맑음	7/25℃
옥산도	맑음	17/22℃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5m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2.0~4.0m 2.0~4.0m
보통 주의 낮음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2/22	11/21	11/21	12/22	12/23	12/22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내년 광주 741억·전남 1,527억 줄어 '비상'

교과부 국감 자료

2010년도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광주·전남 교육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교육청별로 배분하는 특별 교부금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도권과의 지방간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예산은 총 37조 8천억원으로, 2009년 대비 1.2% 감소했다. 이는 정부에서 16개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와 국세부 교육세가 재원으로, 내년도 국세 수입이 3.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규모도 줄어든 것이다. 우선 광주는 2009년 1조 840억원

에 이르렀던 교부금이 내년엔 1조990억원으로 741억원(-5.9%)이, 전남은 2조2천333억원에서 2조806억원으로 1천527억원(-6.7%)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15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던 광주는 올해 706억원을, 전남은 1천458억(전년 116억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교부금의 수도권 편중도 심각했다. 2007년 대비 2008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점유율은 서울(12.6%→13.1%), 인천(4.3%→5.4%), 경기(12.9%→15.6%) 등 수도권 지역은 상승한 반면 전남(7.1%→6.0%) 등은 감소했다.

광주는 3.4%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현 정부에서 부자감세 등으로 세수를 줄인 탓에 교부금도 감소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 교육 분야의 예산이 축소돼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까 됐다. 특별 교부금도 수도권 위주로만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교부금 감소로 발생하는 지방채는 5년 거치 기간을 거쳐 교과부에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으나 결국 지방채 자체가 교과부의 재정을 압박하게 돼 향후 교육 관련 각종 사업비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그리스도본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원/062-605-1114 / 대학원 605-1115

대호온돌나라 특가전
지금이 온돌침대 구입 최적기입니다
100% 순목재 온돌침대에 피하! 온돌침대 전문 회사 1082-3380-1000

산水土風
한우로 만든 최고 품질의 육류 가공품, 맛과 영양을 겸비한 한우로 만든 육류 가공품, 맛과 영양을 겸비한 한우로 만든 육류 가공품